

팀 케미, 하위 등급선수도 춤추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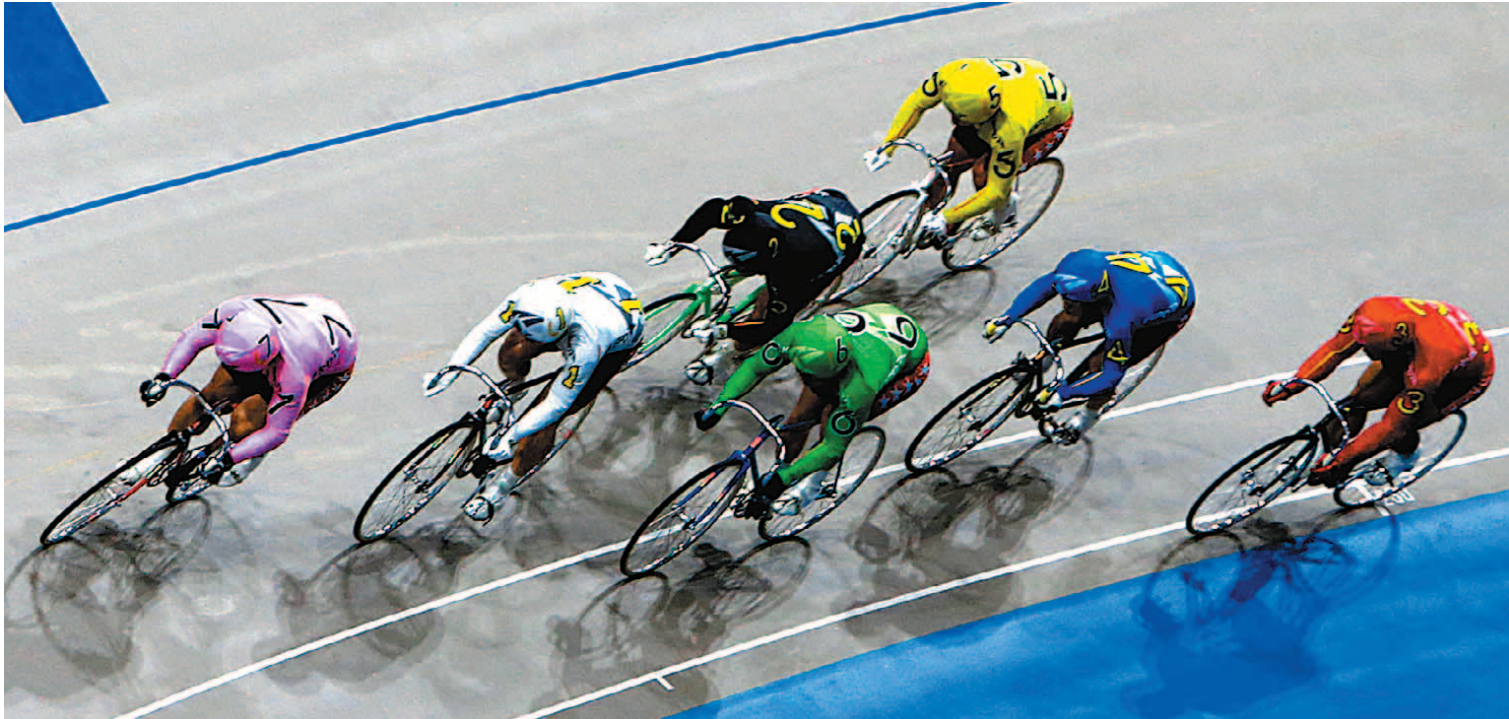
세종팀, 새 훈련부장 황인혁 효과 특출
정하늘 합류 동서울팀 신은섭과 시너지
창원A팀도 성낙송 합류 후 특선급 늘어
인지도보다 기량 급상승 선수 체크해야

경륜에는 현재 25개 팀이 있다. 선수들은 보통 훈련지를 중심으로 오전에는 팀원들이 함께 단체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인 훈련을 한다. 한 팀에는 선발급부터 우수급, 특선급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 있다. 하위 등급은 상위 등급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개인기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얻는다. 그래서 소속팀은 경주를 예상할 때 선수들의 지역 연대 형성을 통한 협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 몸 상태나 최근의 기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팀 기세를 살펴라

잘 타는 신인이 합류하거나 새 훈련부장의 의욕적인 훈련 스케줄로 팀 분위기가 달라지면 팀원 전체가 고른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기량이 출중한 선수가 최근 가세했다거나 훈련부장이 젊고 의욕적인 선수로 바뀌었다면 그 팀의 기세를 예상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전주팀의 경우 최래선의 합류로 우수급 선수들의 기량이 급상승하고, 특선급 이오희도 기세를 회복했다. 세종팀도 황인혁과 김주상이라는 결출한 특선급 강자들이 이적하고, 황인혁이 훈련부장을 맡으면서 팀의 규모가 커졌고, 현재 충청권의 중심 역



경륜선수들은 대부분 훈련지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활동한다. 소속팀이 같은 선수들은 경주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팀 분위기에 따라 선수들의 기세가 달라지기도 한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할을 하고 있다.

동서울팀의 변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정하늘의 합류 이후 신은섭의 기량도 함께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두 선수 모두 SS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양주와 계양팀을 넘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짜임새를 갖춘 팀으로 성장했다.

창원A팀 또한 성낙송의 합류 이후 윤민우, 이승철 등의 기량이 급성장해 특선급 강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양팀은 정재원이 훈련부장을 맡아 정종진, 황승호 등 계양팀 선수들과 정정교 등의 양주팀 선수들이 함께하는 해의 전지훈련으로 전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인지도를 맹신하지 마라

경기 분석에서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들 인지도다. 인지도는 오랜 기간 꾸준히 활약한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미지다. 하루 이를 반짝 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도가 높으면 자리 잡기에 유리할뿐더러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인지도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승부거리가 짧아지고 전개상 마크, 추입 위주의 경기가 많아진다. 자력형 선수라도 실전에서 자주 구사를 안하면 자력승부에 약점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한 번 무너지면 본인의 전략 정체성을 찾기 못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고전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서로 뭉쳐 기존 인지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 스타일로 경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과거 인지도에만 기대는 선수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경기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옛 인지도만 맹신하는 분석은 가장 피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정종진,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 우승



정종진

경륜 최강자 정종진이 스포츠서울배 대상경륜에서 우승했다. 1일 예선, 2일 준결승을 거쳐 3일 열린 특선급 결승에 정종진은 성낙송, 황인혁, 황승호, 박병하, 정하늘, 정재원 등과 함께 올랐다. 결승 진출 7명 중 5명이 수도권 선수여서 거칠 것 없는 요즘 기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종진은 예선과 준결승에서는 추입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승에서는 일찌감치 선형 승부를 펼쳐 후미를 마크하던 같은 계양팀인 황승호(2위)와 동반 입상했다. 3위는 정하늘이 차지했다.

2019년 광명 스피드 문화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9년 광명 스피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경주가 없는 날에 경주 관람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건전문화 프로그램 활동이다. 올해는 문화교실 7개(동화 구연, 노래교실, 서예, 오키나와, 민화, 생생 뮤직, 웃음교실)와 스포츠교실 10개(건강댄스, 댄스스포츠, 건강 체조, 탁구, 요가, 스피닝 바이크, 자전거교실, 외발자전거교실, 트랙 아가데미 선발·우수반) 총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재료비·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참가 접수는 경륜 홈페이지(http://www.krace.or.kr)와 광명 스피드 은빛누리 문화센터 사무실(월~금, 10~16시)에서 가능하다. 문의:경륜 서비스팀(02-2067-5155)



문주엽·박준현·김태용, 전반기 경정 ‘新 트로이카’

문주엽 올해 우승만 5회…삼연대율 100%
박준현 5연속 입상·김태용 1착 3회 상승세

미사리 경정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주역은 6기 문주엽(38세·A2등급), 12기 박준현(35세·B1등급), 13기 김태용(33세·B1등급)이다.

선두주자는 문주엽. 빠른 수면 적응력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9번 출전해 우승 5회, 준우승 2회, 3착 2회의 성적으로 승률 56%, 연대율 78%, 삼연대율 100%라는 완벽에 가까운 경주 운영을 보여주었다. 다섯 번의 우승 가운데 1회 차와 5회 차에서 휘감아쥘기로 승리해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보통 아웃코스에서는 스타트 승부로 한 템포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거나 허점을 공략하는 두 가지 방법뿐인데, 문주엽은 후자



문주엽



박준현



김태용

쪽이다. 그는 과거 스타트를 과감하게 끌고 나와 경주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빈틈을 파고들더라도 자신감이 없어 머뭇대다가 시속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탄력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반적인 페이스가 최고점을 찍고 있어 남은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박준현의 상승세 또한 상당히 매섭다. 2월 10일까지 출발위반 소멸일이 남아있어 자칫 무리하게 스타트 승부에 나섰다면 주선보류라는 패널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심리적 부담 때문인지 지난해 하반기는 우승 3회, 준우승 4회, 3착 9회로 성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확 달라진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7회 출전해 우승 2회, 2착 3회를 기록하며 5연속 입상행진을 기록했다. 박준현은 스타트 센스가 있어 데뷔 후 평균적으로 0.2초대를 유지했다. 최근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이제 출발위반 유예기간이 끝나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데뷔 5년 차인 김태용도 급부상 중이다. 선수생활 첫 해인 2014년 하반기에는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2015년과 2016년 역시 4승과 5승에 그쳤다. 2017년에는 10승과 2착 9회, 3착 11회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는 듯했으나, 지난해에 플라잉의 탓에 걸리면서 우승 4회, 2착 7회, 3착 3회에 그쳤다. 하지만 1착 3회, 3착 1회로 선전해 성능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는다면 입상 후보로 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아직 경기력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없고 경주 운영 역시 보완할 점이 많지만, 요즘 기세만 보면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만 하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교육·퍼즐

에듀월

주택관리사 합격 필독 교재 배포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2020년 상대평가 전환...합격 비법은?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직 열기가 뜨거운 자격증이다.

주택관리사는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요구되고 계획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보수면이나 사회적 인지도면에서 어느 자격증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확실한 전문 자격증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시험은 2020년부터 상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것. 해당 이슈는 수험생들의 학습과 합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종합교육기업 에듀월은 21회 주택관리사



에게 '주택관리사 합격 필독서'를 배포 중이다.

주택관리사의 역할과 취득 후 전망부터 시험 일정, 시험 과목 등 수험 준비에 주의해야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철저한 학습관리 방법을 제시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점도 특징이다.

7개년 기출을 철저히 분석한 과목별 필승전략도 포함돼 엄선된 주요 단원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에듀월 합격생이 전하는 팁도 수록됐다. 이벤트는 에듀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험 최고득점 합격생을 배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득점 합격이 가능했던 합격 방법부터 과목별 학습방법 등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선착순 50명

■ 스도쿠문제

		1				9		4	
9				1		8			7
			8		3		9		
1	2			8				7	
			9	3		4	8		
	3				9			5	1
			5		2		7		
7				8		3			5
	8		9					6	

			2	7		5	9		
		3			2			5	
5				4					3
2					1		4		7
	7			6		8			3
6		3			4				8
3						1			9
	8				7			4	
			7	9		4	3		

■ 스도쿠정답

4	9	1	9	1	6	8	8	2	
9	6	2	8	9	8	1	4	1	
8	8	1	2	4	4	9	6	9	
1	9	4	2	6	7	9	8	8	
9	2	8	4	1	8	6	1	9	
6	4	8	9	8	5	4	2	1	
2	1	6	1	8	6	8	9	4	
1	8	9	8	4	1	1	2	9	6
8	4	9	6	9	2	1	1	8	
2	8	8	4	9	6	1	9	1	
9	4	1	2	1	8	9	8	6	
6	1	9	1	9	8	4	2	8	
8	6	9	1	4	2	8	1	9	
1	8	2	8	6	9	9	1	4	
1	9	4	8	1	9	8	6	2	
8	2	1	6	8	4	1	9	9	
4	9	8	9	2	1	6	8	1	
9	1	6	9	8	1	2	4	8	